

안산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이 **안산톡톡**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성황리 폐막



02 시민이 그리는 안산시

안산시 협치협의회 출범

안산시는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을 통해 시와 시민이 협업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03 경기도체육대회 &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 안산시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

안산에서 열린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각각 사흘의 열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05 바다와 숲을 함께 즐기다

바다향기수목원, 선감도에 개장

선감도에 숲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이 5월 10일에 문을 열었다. 수목원과 멀지 않은 곳에 대부해솔길, 유리섬박물관 등 관광명소가 있으니 6월에 꼭 한번 방문해보자.

12-13 아이 LOVE YOU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안산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전·후로 아이 양육에 필요한 아동수당, 보육료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자!

시민이 그리는 안산시...시정 운영 참여 · 마을 현안 스스로 해결

다양한 직업 · 연령대 시민위원 70명, 시정현안 의견 참여

안산시 25개 동에서 이뤄지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3년 더 연장 운영 계획

한치 협치안산

‘협치’.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산시민과 안산시가 함께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還流 · Feedback)하는 시정의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뜻한다. 안산시가 시민과 함께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안산시 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조례’에 명시된 협치의 의미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시정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다. 안산시는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을 통해 시와 시민이 협업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함께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3년째 추진 중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3년 더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이 시정 운영에 참여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이 만든 생활밀착형 정책을 시정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안산시 협치협의회,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떤 역할을 맡는가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산시 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목적은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시정에 대한 시민과 시의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같은 해 9월 조례 제정을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시에서 추진하는 협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

극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밝혔고, 참여한 시민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타냈다.

조례 제정과 함께 모두 70명으로 이뤄진 시민 위원 구성까지 마치면서 협치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 됐다. 4월 30일 안산시협치협의회 출범식과 제1차 정기회의가 열리면서 협치협의회는 결실을 맺고 시정 참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안산시의 협치를 이끌 시민 위원은 다양하게 구성됐다. 28세 청년부터 79세 최고령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으며, 시민사회직능단체장과 종교인, 기업 대표 등 많은 직업군이 포함됐다. 이들은 ▲혁신공론분과 ▲문화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분기마다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주요 시책과 행정 개선 등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도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분과별 의견을 모으는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게 된다. 더욱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0명 이내로 구성된 시민기획단도 구성된다.



시민위원의 의견은 매년 11월 제2차 정기회의를 통해 모인 안건을 의결하며, 민선 7기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민 위원으로 구성된 협치협의회를 통해 시민이 직접 안산시의 현재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의 협치를 통해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 더욱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차 맞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3년 더 확대 운영 추진

인구 72만여 명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경기도에서도 대도시로 묶인다. 인구 60만이 넘는 경기도 내 시는 안산시를 포함해 8곳에 불과하다.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안산시에서 ‘마을’ 명칭이 어색할 수 있지만, 안산시는 주민 간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7년 마을 중심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프로그램을 통해 25개 동 주민들은 스스로 조직을 꾸려 봉사활동, 교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바로 옆집에 살지만 얼굴도 몰랐던 이웃 간 정(情)을 쌓으며 ‘우리’라는 친밀감으로 묶이기 시작했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진행된 ‘주민주도 이웃 나눔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육아를 통해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을 중심으로 돌봄 공동체가 확산되기도 했다.

손길이 닿지 않던 동네 텃밭, 앞마당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으로 꾸러진 ‘우리 동네 일촌가드너’가 관리에 한몫하고 있다. 수십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꾸러진 일촌가드너는 원예기술과 지식을 배운 주민들이 마을정원을 함께 가꾸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며 활동 중이다.

올해도 ▲공동체 회복 마을 살이 활동지원사업 ▲세월호 이슈기반 지역혁신 사업 ▲미래세대 성장지원사업 ▲공동체 역량강화 및 소통증진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화 방안 마련 사업 등 5개 유형, 3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공동체 프로그램은 다시 한 번 주민들을 하나로 모을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으로도 도입하려 한다”며 “3년 동안의 성과를 안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3년 더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시민협치협의회 (031-481-3402)



‘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 경기도민 최대 스포츠 축제 성료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성황리 폐막... 개최지 안산시 우수한 성적



안산에서 열린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도민체전)와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장애인체전)가 각각 사흘의 열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을 슬로건으로 내건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은 ‘환경체전’을 목표로 기존 대회와는 달리 1회용품 · 플라스틱 비치를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

개최도시 안산시 선수단은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에서 선전을 펼쳐 자존심을 지켰다. 지난해 양평군에서 열린 대회보다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모든 대회에서 성취상을 받았으며, 도민체전에서는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면서 전체 선수단의 본보기가 됐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안산시는 올 9월과 10월에 각각 2019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안산 와~스타디움서 올려 퍼진 힘찬 함성

1천350만 경기도민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도민체전이 5월 9~11일 안산시 전역에서 열기를 뿜었다. 5월 9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많은 볼거리가 제공돼 경기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인기 그룹 모모랜드와 가수 김연자의 식전공연부터 큰 관심을 받은 개회식에는 31개 시·군 선수단 1만2천여 명 외에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개회식에 앞서 마련된 안산시 홍보관, 풍선아트, 플리마켓 등 각종 부대시설은 수많은 관객을 맞았다. 개회식의 피날레는 가수 에일리와의 인기 그룹 세븐틴이 장식했다.

대회는 1부 15개 시(안산·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평택·파주·의정부·시흥·김포·광주)와 2부 16개 시·군(광명·군포·하남·오산·이천·양주·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이들은 육상, 수영, 축구 등 21개 정식종목과 농구, 레슬링, 바둑 등 3개 시범종목 등 모두 2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준우승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3위 우수한 성적을 내며 두 대회에서 성취상 수상

1부에서는 3만203점을 획득한 수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종합순위 1위를 지켜내 대회 2연패를 이뤘다. 지난 대회에서 8위를 기록했던 안산시는 홈에서 열린 이점을 통해 2만7천774점을 따내 6계단 상승한 2위를 차지, 우수한 성과를 냈다. 3위는 2만6천226점을 획득한 화성시다. 2부에서는 2만3천762점을 기록한 포천시가 차지했으며, 이천시(2만2천267점)와 양주시(2만1천394점)가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다.

11년 만에 안방에서 도민체전을 치른 안산시는 육상, 테니스, 태권도, 사격, 당구, 바둑 등 7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저력을 바탕으로 종합순위 준우승을 차지했다. 종합순위 수직 상승의 저력으로 성취상 수상과 함께 참가 선수단의 본보기가 돼 모범선수단상도 받았다. 이밖에도 경기단체 질서상은 경기도배구협회가, 최우수 선수상은 육상에 출전한 양주시 소속 ‘육상유망주’ 이재성 선수에게 돌아갔다.

안산시 뜨겁게 달군 장애인체육인들의 열정과 투혼

도민체전에 이어 5월 23~25일 진행된 장애인체전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장애인체전에 참가한 선수단은 모두 3천544명(선수 2천50명·임원 970명·보호자 524명)으로, 이들은 보치아, 론볼, 육상 등 17개 종목에서 뜨거운 열전을 펼쳤다.

도민체전과 마찬가지로 각종 부대행사와 가수 장윤정, 박상철 등의 공연이 마련된 개회식에는 많은 시민이 찾아와 스포츠 축제를 즐겼다.

2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안산시 선수단은 처음으로 장



장애인체전을 안방에서 개최, 4만3천721점을 획득해 종합순위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종합순위 1위는 5만4천274점을 따낸 수원시가 차지해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어 부천시가 5만1천21점으로 준우승을 이뤘다. 개최도시 안산시는 지난 대회 종합순위 7위에서 4계단 상승한 3위로 성취상을 수상했다.

평택시 소속 이아름 선수는 역대 3관왕을 차지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으며, 부천시 육상 종목의 윤종기 코치가 지도 자상을 받았다. 모범선수단상은 양주시 선수단이, 경기단체 질서상은 경기도장애인본불연맹이 각각 수상했다. 격려상과 진흥상은 각각 가평군 선수단과 용인시 선수단이 차지했다.

사흘간의 열전은 5월 25일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폐회식에서 종합 성적 발표와 시상, 폐회사 등이 진행됐으며, 차기 개최지인 고양시에 대회기를 전달 하며 마쳤다.

5월 한 달 동안 안산시 전역을 뜨겁게 달군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한 ‘환경체전’으로 진행됐다.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컵과 페트병에 담긴 물 대신, 스테인리스 컵과 종이팩 생수인 ‘상록수(水)’가 비치돼 선수단과 관객 등의 갈증을 해결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와 안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는 9~10월 열리는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도 선수단과 관객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오는 9월 26~27일 열리며,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10월 18~21일 진행된다.

◇ 문의 : 안산시체육회(031-481-2821)
안산시장애인체육회(070-7790-0550)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임신부 교통편의 제공

한 달에 왕복 두 번 이용 가능... 세 번째 탑승부터는 기본요금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할 때 100원의 요금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5월 16일부터 시작된 '100원 행복택시' 제도는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달에 두 번(왕복 4회 탑승)까지 이용 가능하며, 안산시 내 병원을 방문할 때만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탈 수 있다.

세 번째부터는, 시외 병원으로 산부인과 치료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기본요금은 10km까지는 1천200원, 추가 5km당 100원이다. 3천원인 현재 택시의 기본요금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길거리에 나가 기다릴 필요 없이 시에서 운영하는 하모니콜 센터(1588-5410)에 전화하면 집 앞으로 택시가 찾아온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59대의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차량에 더해 바우처택시 60대를 도입한다. 바우처택시는 임신부 외에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장애인, 버스·지하철 탑승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5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서도 1천200원의 기본요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신부 교통편의를 위해 최근 시행된 100원 행복택시 외에도 안산시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다.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학자금 지원, 다자녀양육비 등 현금 지원을 비롯해 10만원 상당의 출



산 축하용품과 각종 혜택이 담긴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 등 현물도 전달된다. 첫째를 낳으면 1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으로, 넷째부터는 1천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12~13면을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하모니콜센터(1588-5410)

안산시, 대부동 3개 마을 공공형 행복택시 운행한다

주민은 1천원 부담 · 차액은 시가 지원



안산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부동에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노인 인구가 많은 대부동 흥성리, 향남곡, 흘곶 등 3개 마을을 행복택시 시범운영 마을로 지정, 5월 2일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공공형 택시 운행에 들어갔다.

3개 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도로의 굴곡 및 경사가 심해 차량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시는 버스정류장과 거리가 먼 이곳을 우선적으로 시범마을로 선정하게 됐다.

행복택시 사업은 2017년 반월동 안골마을을 시작으로 현재는 5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대부동 3개 마을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 주민들은 모범택시 사무실로 전화하면 흥성리 등 3개 마을과 대부동 모범택시 대기소간 이동할 수 있으며, 1천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용요금 차액은 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행복택시 최초 이용자 대부동 주민 김효선 씨는 "행복택시를 타보니까 아주 좋았다"면서 "택시가 집 앞까지 오고 금액도 7천~8천원 나오는데 1천원만 내면 된다"고 자랑했다. 김 씨는 또 "안산시가 참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나처럼 상동 시내를 자주 다니는 주민에게는 티켓을 더 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반월동 공공형(행복) 택시 사업은 2년 동안 4천455명의 주민들이 4천211회나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대부동 3개 마을을 시범운영하고 주민수요 및 만족도, 가용자원 등을 파악해 향후 주변 마을에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56)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안산시, 관외학교로 진학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비 지원

안산시는 관외학교로 진학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는 지원을 시작했으나, 안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시는 관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관내 학생과 차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올해 3월 4일 기준(입학일)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이 대상이며,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에게 계좌입금(현금지원)하는 방식이며, 시는 약 65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올해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만원을 교육지원비로 지급했다. 중학생 6천11명, 고등학생 4천854명 등 모두 1만865명에게 지원비가 전달됐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안산시 자체예산으로 마련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민으로서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제정 등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신청시기 : 2019.6.3.~12.10.
(최초 지급은 2019. 7월 예정)
- ▶ 접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청소년과
- ▶ 구비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접수처 비치),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학부모 또는 학생)
- ▶ 신청자 : 학부모 또는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2)



바다와 숲을 함께 즐기다... 바다향기수목원, 선감도에 개장 상상전망대, 암석원, 장미원 등 19개 주제 정원 및 각종 관람 편의시설 갖춰

안산시 선감도에 숲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이 5월 10일에 개장해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서해안 도서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도민의 산림휴양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 일원에 총 101만㎡(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됐다. 투입된 사업비는 국비 87억 원, 도비 246억 원 등 모두 333억 원으로, 2007년 4월 착공해 올해 5월 10일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상상전망대', '암석원', '장미원' 등 19개의 주제 정원이 갖춰졌으며, 중부 서해안의 대표 수종인 곰솔, 소나무 등을 비롯한 총 1천4종, 30만본의 초목류가 식재돼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모든 상상이 전망되는 곳'이라는 뜻이 담긴 상상전망대는 파도와 물고기, 하늘 등이 길이 70m, 폭 5m 크기의 언덕에 도자파편으로 형상화 됐다. 이곳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밖에도 장미향으로 가득한 장미원과 다양한 고산식물을 만날 수 있는 암석원, 서해안 도

서지역의 식물을 망라한 '도서식물원', 각종 수생식물이 있는 '바다너울원' 등의 주제가 담긴 정원도 놓칠 수 없는 장소다.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방문자 센터와 소공연장, 쉼터, 화장실 등 각종 시설도 곳곳에 설치됐으며, 500여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주차장도 마련됐다.

수목원 관람 뒤에는 가까이 있는 누에섬 풍력발전기, 탄도항, 대부도, 구봉도 등 다양한 관광 명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말이면 나들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많은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다향기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의 보고이자 생태교육, 산림휴양, 문화 등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명품 수목원"이라며 "특히 대부해양 관광지와 연계해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다향기수목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현재 입장료는 무료다.

◇ 문의 : 바다향기수목원(031-8008-6795)

6월에 가기 좋은 대부도 3선 대부해솔길(1코스), 종현어촌체험마을, 유리섬박물관

6월을 맞은 대부도에 관광객이 넘쳐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는 개미허리아치교와 낙조전망대가 있는 대부해솔길 1코스가 대표적이다.

개미허리아치교는 대부북동 구봉도의 아홉 개 봉우리 중 두 개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곳이다. 썰물 때는 두 섬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지만 밀물 때는 두 섬 사이에 바닷물이 차 오갈 수가 없게 된다. 하루에 두 번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안산시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두 섬을 연결하는 데크길을 조성했고, 데크길은 개미허리아치교로 불리게 됐다. 멀리서 보면 두 봉우리 중 하나는 개미의 머리고 또 하나는 몸통으로 그 중간을 연결하는 데크가 개미허리와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낙조전망대는 해가 서해바다로 지면서 긴 해무(海霧·바다 위에 끼는 안개)를 남기는 낙조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소문난 곳이다. 이곳에 설치된 원형 데크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낙조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함께 설치된 태양을 형상화한 조형물은 사진촬영의 명소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 낙조전망대는 사진작가 사이에서 낙조를 찍기 좋은 촬영 포인트로 유명하다. 바로 옆에 있는 빨간 등대는 또 다른 사진촬영지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개미허리아치교와 낙조전망대를 들린 후 거쳐 가는 곳은 종현어촌체험마을이다. 이곳의 바지락체험은 가족과 연인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 꼬끼리열차 타기, 맨손고기잡기 체험 등은 대부도를 잊지 못하게 하는 정겨움으로 다가온다.

유리섬박물관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 Glass Art를 소개하고 유리예술문화 공유를 목적으로 유리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테마 여행지로 잘 알려져 있다. 자연을 유리로 재현한 테마전시관과 현대 유리 작가들의 기획전시전이 열리며, 유리공예 시연장에서는 하루 3차례 유리조형 작가들의 유리공예품 제작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유리공예전시품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이곳 야외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영화주인공을 형상화한 조각 수십 개가 전시됐다. 대부도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다 보면 하루가 짧게 느껴진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안산시, 여름철 '폭염대응종합대책' 본격 가동

그늘막 · 무더위 쉼터 · 재난도우미 확대 운영 등 폭염 방어책 눈길



생생그늘터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안산시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안산시 여름철 폭염대응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폭염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행정안전국장을 팀장으로 상황관리 총괄반, 취약계층지원반, 농·축산·어업 폭염대응반, 건설업 폭염대응반, 용수·전력관리반, 무더위쉼터 관리반, 폭염저감시설 및 시설물 관리반, 홍보반 등 총 8개반 56개 실·과·소·동으로 폭염대응 T/F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분야별 폭염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폭염대책 기간(5월 20일~9월 30일) 중 폭염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폭염취약계층 집중관리에 나선다. 무더위쉼터를 확대하여 기존 253개소(동행정부지센터, 경로당 등)에서 체육관 17개소를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관리요원, 생활관리사, 방문보건팀,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 등 폭염재난도우미는 총 529명으로 지난해보다 143명 증원해

확대 운영한다. 관내 곳곳에 생생그늘터(그늘막)를 확대 설치(상록구 41개소, 단원구 40개소)해 총 170개를 운영하고, 화랑오토캠핑장 내 물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시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여름나기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폭염에 의한 도로시설물 안전에 대비해 기준치 이상 변형 시 긴급보수를 시행하고 버스 승강장 사이니지, 시흠폐이지,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염대응행동요령 등을 홍보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폭염대응 T/F팀을 지난해보다 빠르게 구성했다"며 "세분화된 폭염대응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645)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필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주세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신고 대상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신고(접수) 요건
 - ▶ 사진자료 첨부
 -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경기도(1만5천49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특별시(6천271건), 인천광역시(5천1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자제(고정식 오전 11시30분~오후 2시·현장단속 정오~오후 1시)하고 있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된다"며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야 하는 ▲소화전 5m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안산시는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대상사업은 동단위 정책사업으로 ▲우리 동네 생활 주변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 특색사업, 시 단위 추진사업 ▲공동체, 일자리창출, 문화체육, 주민복지, 도시환경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제안하면 된다. 다만 단순 민원성 제안, 국·도비 보조사업, 특정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성격에 따라 동별 지역회의에 의제화되어 주민들의 숙의·토론과정, 사업부서의 시급성·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총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안산시 홈페이지 예산공개시스템(<https://www.ansan.go.kr/fin>)에 접속해 주민참여예산방 제안사업 공모 글쓰기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또는 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예산법무과(031-481-3028, 3031)

올 4월 17일부터 도입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한 달 동안 전국에서 5만6천688건이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접수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6천688건(일평균 1천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9천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2천352건), 버스정류장 15.9%(9천11건), 소화전 10%(5천645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²⁸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 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뻔'하지 않고 '편(Fun)하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김썬아트워크'



안산시 청년큐브 예대캠에 입주해 '뻔하지 않고 편(Fun)하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작팀 '김썬아트워크'를 만났다.

김썬아트워크에는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는 김성수(34, 사진) 대표의 작가명 '김썬(Kim ssun)'에 '아트워크(Art Work)'를 붙여 '작가의 이름을 걸고 예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안산이 고향인 김 대표는 신안산대학교에서 디지털미디어를 전공했다. 졸업 후 케이블방송국에서 조연출로 1년 반 근무하며 꿈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 김 대표는 '30~40대가 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고민 끝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일(Work)은 인생의

주체가 아닌 행복한 삶을 위한 일부이어야 한다"며 장소에 제한받는 직장인이 아닌 직업으로 창업을 선택했다.

웹사이트 기획자이자 일러스트 작업을 해온 김 대표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8월 팀을 꾸려 지금의 자리로 왔다. 김썬아트는 시각디자인과 일러스트, 웹디자인을 기반으로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한다.

여행을 좋아하는 김 대표는 "7년 전 일본여행에서의 신선한 자극이 현재 김썬아트워크의 아이템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여행 스케줄러 애플리케이션 '트레블릭'을 소개했다.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비슷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모여 안타까웠다"는 김 대표는 여행(Travel)을 블록(block)처럼 쉽게 쌓아서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1인 여행이나 즉흥여행을 돕는 앱 '트레블릭'을 기획했다.

트레블릭은 특색 있는 여행을 원하는 1인 여행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여행 성격에 따라 숙소와 맛집을 소개하며, 날씨와 소요시간 등 여건이 바뀔 때마다 변동요소를 실시간으로 적용해 일정을 수정할 수 있는 여행 스케줄러다. 기본 여행정보는 공공데이터 TourAPI 3.0을 활용한



여행 스케줄러 애플리케이션 '트레블릭'

국내 유일의 실시간 다국어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업무에 지쳐 주말이면 방구석에서 튀구는 직장인들이 30분만 검색하면 다음날 바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우선 국내여행 프로그램으로 올 8월 1차 테스트 후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트레블릭 앱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 홍보 일러스트, 포털 사이트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데코' 연재 작가, 삼성 갤럭시 테마 작가로 활동해온 김 대표는 트레블릭 앱의 편리성에 집중했다. 아울러 앱은 가족과 친구들과 스케줄을 공유할 수 있으며 강의계획표, 일정표, 가계부로도 응용 가능하다.

◇ 문의 : 김썬아트워크(www.kimssun.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사회적기업

공예의 모든 것, '그릿협동조합'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으며 제2의 인생을 맞는 엄마들



5월 17일,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릿'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엄마들을 만났다.

'그릿(GRIT)'은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미국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웬스가 개념화한 용어다.

예전에는 저마다 직업이 있었지만 결혼 이후 육아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된 엄마들이 '그릿'을 모토로 자신의 숨은 재능을 재발견하며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재취업 프로그램 수강생이었던 이들은 재취업을 목표로 참여했지만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공예 강좌는 문화센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공예를 배우는 수강생 대부분은 취미를 넘어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회에 재능을 나눌 방법을 몰라 또다시 비슷한 강자를 기웃거리며 소위 '학습쇼핑'을 한다.

재취업을 목표로 모인 수강생들은 동아리를 결성해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수공예 범위를 확장, 6명이 작년 5월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릿협동조합의 목표는 배움이 단순한 취

미생활에 그치지 않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릿 조합원들은 냅킨공예, 스트링아트, 양말인형 만들기, 마크라메(서양매듭) 등 다양한 공예실력을 갖췄다. 생화를 특수 보존 처리한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꽃이 가장 예쁠 때의 모습을 길게 즐길 수 있고 촉감이 부드러워 꽃바구니, 디퓨저 등 다양한 인테리어의 소품으로 인기가 높다. 꽃은 보고 즐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소품에서 원예테라피 등으로 공예 트렌드는 계속 바뀐다. 이런 변화에 조합원들은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함께 어깨동무하며 걷는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모여 재능을 나눈다.

그릿 조합원들은 초·중·고등학교 수업과 연계한 시스템을 갖추고, 공예뿐만 아니라 연극·생태 수업과 성인강좌도 운영한다. 취미반과 자격증 과정인 강사반을 운영해 재취업도 돕는다. 조합원 중에는 공방을 창업해 홀로서기에 성공한 회원도 있다. 교육사업 외에도 플라마켓에 참여하거나 주문 제작 판매도 한다.

박은경(44) 씨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간 손재주가 없다고 여겼는

▽ 그릿협동조합의 공예제품들



데 여기서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어요"라고 했다.

회의를 통해 수업 일정과 플라마켓 참여 등 의견을 공유하며 회원들에게 조언도 받고, 서류 업무 등 그간 직장에서 쌓은 경력도 발휘하며 힘을 보탠다.

치과 간호사였던 박연수(43) 대표는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는데 지금은 가정과 일을 동시에 행할 수 있고, 학교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즐거움과 보람으로 제2의 삶을 사는 기분이다"며 "공예 쪽에 관심 있거나 새로운 분야를 찾는 엄마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그릿협동조합(010-4331-5727)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INTERVIEW

1천분의 1초의 승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수경 선수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육상 여자 100m 금메달리스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에서 열린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안산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1부 준우승에 해당하는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성취를 이뤄낸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 중 육상 종목 여자 1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오수경 선수(안산시청)를 만났다.

Q. 먼저 금메달 따신 것 축하한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의 소감을 전해 달라.

이번 경기도체육대회가 홈그라운드인 안산에서 열린 대회였는데 안산시청 소속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이라 더 특별하고 뜻깊었다. 우리 육상팀의 다른 선수들도 모두 다 열심히 대회에 임했고, 그 결과 대체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 대회를 앞두고 지난 동계훈련부터 함께 열심히 고생했는데,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Q. 혹시 금메달에 대한 예상은 했는지?

예상은 안했다. 평소 운동하며 특정한 예상을 하고 훈련하지 않는다. 꾸준히 훈련해서 자신의 한계를 계속 넘다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위치에 오를 것이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을 해야지, 정상에 올라야지 생각하며 경기에 임하지는 않는다.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Q. 오수경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소개한다면.

육상 종목에서 100m, 200m, 400m 계주 종목을 뛰는 단거리 선수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대표로 선발되면서 시 대회, 도 대회, 전국대회

를 거치며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선수로 활동하게 됐다. 처음에는 공부하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운동장에 나가 뛰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몰래 나가 운동하곤 했다. 결국 부모님께 걸려 크게 혼나기도 했지만, 열정이 그렇게 크다면 한번 제대로 해 보라며 결국 허락하셨고, 부모님과 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계속 선수로 뛸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하고 국가대표에도 처음 소집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안산시청 오수경 선수

Q. 육상 단거리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실 쉽지 않은 종목이다. 보기에는 그냥 출발하고 빠르게 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세심하게 관리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체중관리와 컨디션 관리는 물론이고, 짧은 시간 결과가 나오는 단거리다 보니 잠깐의 실수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에 마인드컨트롤도 매우 중요하다. 또 초반, 중반, 후반 나름 전략도 있어야 하고 경기를 준비하는데 있어 엄청 예민할 수밖에 없다. 0.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집중이 필요한 종목이다.

Q. 육상선수로서 목표가 있다면.

당장은 다가오는 6월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대회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컨디션을 조절하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또 전국체전이 있고, 계속해서 모든 순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선수로서 최종 목표는 하나로 정해놓지는 않았다. 그 목표를 정해 놓으면 딱 그 만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끝을 정해두지 않는 편이다. 지금도 주변에서는 나이가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은 안하려고 한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더 어린 친구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체력을 관리해서 뛸 것이다.

Q. 안산특색을 통해 만날 안산 시민여러분께 한 마디.

육상이 사실 비인기 종목이라 시민들이 먼저 찾아보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기장을 찾아주신다면 육상이라는 종목이 짧지만 스풀도 있고 선수들의 열정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혹 기회가 된다면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족구’ 종주국 대한민국, 안산시가 이끌고 있다 시 대회 개최마다 70개 넘는 팀 참가

족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구기 종목이다. 족구는 우수비, 좌수비, 세터, 공격수 등 4명의 선수로 구성된 각 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무릎 미만의 발과 턱 이상의 머리 부위로만 수비와 공격을 주고받는 스포츠다. 장비나 규칙이 간단하고 신사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은 생활스포츠이며,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경기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족구 경기는 군대와 직장 야유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렇다면 족구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족구가 활성화된 지역이 어디일까? 바로 안산시다.

안산시의 족구 실력은 뛰어나기까지 하다. 최근 경기도 협회 대회에서 50대부 우승, 여성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그간 진행된 대회에서 빠짐없이 좋은 결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안산시의 족구 동호회원들의 열정으로부터 나온다. 시장기, 시의장기, 시협회장기 등 시 대회가 열릴 때마다 70개 이상 팀이 출전해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족구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심판 제스처를 정하고 안착시키는데 힘을 쏟으며, 타 지역 대회의 심판지원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이 안산시가 대한민국 족구의 메카인 이유이다.

안산시족구협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호회별 연 10만원의 회비를 내야하며 1인 1동호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불우이웃돕기대회, 안산시협회장배 등 5개 이상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경기는 일반부, 40대부, 50대부로 나뉜다.

오준섭 안산시족구협회장은 “작년에 제1회 세계족구대회가 열렸는데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안산 협회장기 족구 대회 폐회식 사진

체코에서 개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제2회 세계족구대회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개최돼야 하며, 개최 도시는 족구 메카인 안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회를 마치면 70개 팀이 각각 회식을 가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문의 : 오준섭 족구협회장(010-8784-0656)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입맛 사로잡는 학교급식 메뉴 개발 시간’

안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학교 영양사 대상 메뉴 개발 요리실습 지원



“15cm 바게트 빵에 가지런히 열 번 칼집을 넣어주세요. 중탕으로 녹인 버터에 다진 마늘과 파슬리를 넣고 소스를 만들어 발라주시는데요, 바게트 빵을 조각으로 자를 수 있도록 칼집 한 칸 식 빼고 발라주세요. 쇠고기는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아 채에 받쳐 뚫니다. 양파·파프리카는 채 썰고 양송이버섯은 편 썰어 기름에 볶고 여기에 살짝 볶아 채에 받쳐 둔 쇠고기를 넣고 설탕·소금·맛술·진간장·다진 마늘·참기름·후추로 양념을 하고 다시 한 번 볶아 줍니다. 그러면 ‘바게트 치즈 스테이크’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버터 소스를 바른 바게트 빵 사이사이에 볶은 채소와 쇠고기를 채우고 모차렐라 치즈를 뿌려주세요. 슬라이스 치즈는 4등분해서 뿌려진 모차렐라 치즈 옆에 끼워주시고요. 이제 호일로 싸서 230도로 예열된 오븐에 10분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안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메뉴개발 요리실습을 지원했다. 조리법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메뉴로 성장기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단품 요리 시연 실습이 농업기술센터 4층 식품가공조리교육실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4월 허니 브레드 딸기 샌드위치 실습에 이어 5월 14일에는 바게트 치즈 스테이크와 슬라이스 핫도그가 선보였다. 이승식 LOY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푸드디자인과 교수는 “바게트 치즈 스테이크와 슬라이스 핫도그는 빵과 고기, 소시지를 이용한 단품 메뉴”라며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한 아이들의 입맛에도 맞고 조리법이 간단해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학교 급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경희 매화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급식 식단을 짜다보면 알고 있는 메뉴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실습 해보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정보 교류도 할 수 있어 좋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3회 차인 6월 교육에는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와 샌드위치 꼬치구이’가 마련된다.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쉬었다가, 9월에는 제철과일 포도·블루베리 과일 타르트와 우리 쌀 인절미토스트가 예정돼 있다. 10월은 마늘을 이용한 갈릭 브레드롤과 사과 파이가, 11월에는 크로크무슈와 핫도그 빵 만들기가 진행된다.

목영현 급식지원팀장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 급식 한 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좋은 식단 구성을 위해 고심하는 각 급 학교 영양교사들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급식지원센터(031-481-331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은 시대적 의무” 안산 14개 동,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앞장서다



원곡동 에너지절약마을 교육하는 모습



원곡동 에너지절약마을 추진협의회 협약식 모습

올해 안산시 14개 동에서는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된다.

5월 3일 원곡동 에너지절약마을 추진협의회(협의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신길동, 초지동, 본오1동 등에서 차례로 추진협의회 발대식이 열리며 에너지지도자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동마다 10여 명에서 80여 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절약마을 주민대표들은 시민 주도하에 에너지 절약 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방법을 알아보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및 대기전원 차단 등 가정과 사업장 내 에너지 절약 활동을 지원한다. 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에는 각 가정을 독려해 오후 9시에 10분간 진행되는 소등 행사에도 함께 참여한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안산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운동은 어느덧 13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2005년 개별아파트 단위의 활동을 시작으로 2007년 동 단위로 확대된 사업은 올해 14개 동, 71개 거점, 4만3천862가구가 참여하는 큰 흐름의 주민 운동이 됐다. ‘시

민이 에너지다. 절약이 발전소다’는 슬로건으로 소등행사,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주민 대표자 회의 및 주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 추진한 결과다.

유미화 안산에너지절약마을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문화를 절약문화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의무가 됐다”며 “지난 10여 년간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에 5만 가구가 참여했던 안산시의 성과는 한국사회 에너지 전환의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할 만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내년까지 2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자립도 2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발대식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깨어있는 10만 시민 양성’이란 새로운 비전을 선언하고, 향후 안산을 세계적인 에너지 절약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안산녹색소비자연대(031-485-1199) /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p>SBS 뉴스 외(5월 2일, 6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 5월 4일 개막</p>	<p>MBC 외(5월 5일) 시화호 수달 가족 '먹방'.. "잉어도 단숨에"</p>	<p>MBC 생방송 오늘저녁(5월 9일) 경기도체육대회 및 1박2일 안산 여행</p>	<p>연합뉴스TV 외(5월 19일) "임신부에게는 100원" 안산시 '행복택시' 운영</p>
----------------------------------------------------------	-----------------------------------------------------------	------------------------------------------------------------	----------------------------------------------------------------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시정 슬로건 홍보 태양광 활용 홍보시설물 설치로 전국 모범사례



안산시는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시내 주요 교차로에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해 시정 슬로건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홍보하는 개비온(돌을 채운 옹벽)을 설치·운영에 나섰다 5월 22일 밝혔다.

홍보 개비온이 설치된 상록구 사동 사리사거리와 성포동 흙플러스사거리는 차량통행량이 많아 시정홍보에 적합한 장소였으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과 도로굴착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의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를 수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한 홍보시설물로 전력 공급에 따른 물리적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해결했다. 설치된 개비온은 가로 3.5m·세로 1.7m·폭 0.5m 크기로, 교통섬에 설치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로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 밤에는 LED 조명으로 슬로건 문구가 선명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정홍보 시설물은 공간적 제약 극복과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밖에도 시청사 현관에 LED전광판을 설치해 시정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에도 시정슬로건을 알리는 와이드칼라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정주요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서 야간에는 LED조명을 이용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며 "신규 설치하는 회전·고정형 홍보탑, 이미지월, 가로계시대 뿐 아니라 기존 시설물도 태양광, 소형풍력 등 친환경 독립 발전기를 통한 홍보시설물 설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031-481-2045)

안산시,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활용 시정홍보 추진 눈길 터미널 이용객 대상 효과적인 시정홍보로 시선집중



안산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안산터미널)에 시정슬로건 와이드칼라 홍보물을 설치하고 TV자막을 이용한 홍보에 나섰다.

안산터미널은 평소 1일 5천여명이 이용하고, 주말 및 성수기에는 1만여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지만 그동안 마땅한 시정 홍보물이 없었다. 이에 안산시는 안산터미널 이용객 편의제공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이용객 편의용 고화질 TV(65인치) 2대를 설치, TV 자막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시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정슬로건 4면 와이드칼라 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산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 A 씨는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터미널에 대기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진 않지만 우리 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 터미널에 와서 대기하게 된다"며, "TV를 보면서 자막을 통해 시의 주요한 행사나 건강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참 좋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인 안산터미널 내에 고화질 TV를 설치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TV 자막을 이용한 시정홍보 및 시 슬로건 와이드칼라 설치로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안산터미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양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031-481-2045)

4만 6천여명이 안산시유튜브서 시선 못떼 대규모 행사로 뜨거웠던 안산의 5월, 생생하게 전달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로 뜨거웠던 안산시의 5월을 안산시유튜브가 현장중계해 총4만6천여명 이상이 시청했다.

안산시유튜브는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열린 안산문화광장에 특별 스튜디오를 마련해 거리극

축제 총감독, 공연연출가, 시민참여자 등이 직접 출연해 축제소개와 공연을 즐기는 팀 등 알찬정보를 제공했다.

또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현장에도 방송 스튜디오를 꾸미고 개그맨 이문재(안산시 홍보대사)의 사회로 마라토너 이봉주(경기도체육대회 홍보대사), 오수경(육상출전, 안산시청)선수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안산에서 개최되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의미와 자부심을 재밌는 입담으로 소개했다.

이번 유튜브 생방송은 총4만6천여명(5월 24일 현재)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거리극축제 현장에 온 것 같아요', '체육대회 현장에 가지 못했는데 유튜브로 보니 생생한 현장감이 있네요', '멀리서 우리 선수들을 유튜브로 응원합니다' 등 4천200여회의 다양한 의견이 댓글로 올라와 시청자 호응 또한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공보관은 "안산시유튜브는 시와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체"라며 "앞으로 좀 더 시민에 가까운 시정홍보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031-481-3126)

(주)허브테라피 안지정 대표

"바른 성분, 믿을 수 있는 제품의 원칙, '아로마테라피'로 행복을 만든다!"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아로마테라피'라는 조금은 생소한 영역에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고 필수적인 제품인 화장품, 비누 등 생활용품과 미용용품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물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원료를 구입하고, 레시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허브테라피이다. 전문 아로마테라피스트로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천연재료 DIY(Do It Yourself) 화장품, 비누, 캔들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허브테라피의 안지정 대표(사진)를 만났다.

Q (주)허브테라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한다면.

처음 시작하게 된 건 16년 전이다. 아로마테라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직접 치료효과가 있는 크림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면서다. 당시 스트레스로 탈모도 와서 삼푸도 천연재료로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치료의 효과를 보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아로마테라피를 공부하고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 후 공방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전국에 좋은 재료들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2010년부터 쇼핑몰을 시작했다. 좋은 원료를 고집하다보니 여기저기서 인정해주고, OEM/ODM* 제작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4년 본격적인 제조업으로 확장했다. 2017년 올리브영, 룩스 등 뷰티 스토어에 OEM/ODM 상품이 들어가고, 미국 월마트에 입점해 수출도 시작했다. 작년부터 중앙아시아, 베트남, 중국 등에도 수출을 준비 중에 있다.

Q 아로마테라피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에서 '아로마'라는 향기, '테라피'는 치료와 치료의 뜻을 갖고 있다. 향기를 통한 치료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힐링', '올로' 등 나에게

선물하는, 나에게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치료라고 본다. 향기를 통해 숙면을 취하도록 하거나 화를 가라앉히는 등 건강과 심리적 치유의 효과가 있다. 향기를 추출하는데 있어 천연식물을 다루는데 각각 최고의 좋은 환경, 원산지에 맞는 최적의 조건들에 맞게 수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비누, 캔들, 화장품 등 아로마테라피가 된 완성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주)허브테라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각종 원료들을 구입해서 안내된 레시피를 보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다양한 향기들 중에 나에게 맞는 것, 맞는 제품을 만들면 된다. 평소 차에 오래 있다면 차량 방향제, 옷에 뿌리는 용도의 방향제, 잠을 잘 못 이룬다면 그에 맞는 캔들 등 천연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아로마테라피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

Q 주요 생산 제품들에 대한 소개한다면.

정제수 대신 23개의 꽃 추출물을 넣어 피부정도 및 진정 능력에 미백, 주름개선 기능을 가진 바이탈 크림, 에센스, 스킨토너 등 화장품이 있다. 또 피부진정 및 소염작용에 탁월한 칼라민(Calamine) 성분이 함유돼 민감한 트러블성 피부에 적합한 폼 클렌저인 '아임네이처 닥터'라는 제품이 있다. 그 외에도 일반 비누와는 달리 동물광합성 오일이 아닌 100%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고, 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재료로 만든 다양한 버블 클렌징 솜(비누) 제품들이 있다. 이 제품들은 (주)허브테라피 완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바른팩토리(<http://bareunfactory.com>)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주)허브테라피(<http://www.herbtherapy.co.kr>)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종 원재료와 만들기 도구 등을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의 레시피도 확인할 수 있다.

Q 천연재료, 식물을 기반으로 한 (주)허브테라피 제품이 일반 제품들과 다른 강점이 있다면.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강점은 공장에서 대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과 상담을 통해 컨디션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낸다. 소비자들의 피부상태, 두피상태 등을 판단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수출하는 제품, 완제품도 그 많은 양을 생산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직접 터치해서 만든다고 보면 된다. 이것이 강점이다.



Q (주)허브테라피는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산 지역 초중고에 아로마테라피스트로서 직업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학교 외에도 각종 기관에서 향기 치료, 체험 등 문의가 들어오면 강의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하는 직업 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로마테라피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알려준다. 아로마테라피도 더 들어가면 조향사, 뷰티 분야, 마사지 테라피, 생활 테라피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꽤 알려졌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아로마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을 더 많이 알리고 싶다. 가끔 학생들 중 향기를 좋아하고, 향기에 예민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발견될 때가 있다. 그런 친구들과 수업 이후 소통하기도 한다. 관련해서 국내 취업 뿐 아니라 외국 취업도 많이 되고 있다. 요즘은 '향기'가 여러 분야에 중요하게 사용되면서 더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Q (주)허브테라피만의 경영철학, 가치가 있다면?

유해성분, 화장품 동물 실험 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해성분과 동물 실험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지 생각했고, 항상 바른 성분, 바른 제품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적합한 원료와 안전한 성분만을 항상 사용하며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품 없는 바른 가격으로 항상 고객을 생각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Q 안산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작은 공방으로 시작해 16년째 향기를 갖고 일하고 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도 향기롭고 싶어 할 것이고, 향기가 얼마나 내 몸에 행복을 주는지 꼭 느꼈으면 좋겠다. 허브테라피가 항상 시민 여러분과 가까이 할테니 안산 시민 분들 언제나 생각하시면 (주)허브테라피를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

*OEM :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ODM : 하청업체가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아이 LOVE YOU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연평균 30만 명 넘게 감소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한국의 출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각종 출산정책을 강화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출산 전·후로 아이 양육에 필요한 아동수당, 보육료 등 각종 지원혜택이 준비하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안산! 살기 좋은 안산! 출산·양육과 관련해 정리된 표를 보고 꼼꼼하게 챙기자!

출산장려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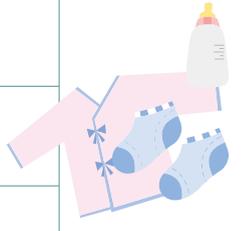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	문의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 넷째아 1천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은 2019. 12. 31.출생(입양)아까지 지원하고, 2020. 1. 1.출생(입양)아부터는 300만원 지급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481-2604, 2606)	
출산축하용품	출산일기준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축하용품 (A, B세트 중 택1) 1세트 및 축하카드 지급 ※지원방법 - 출생신고 후 신청인의 희망배송지(안산시에 한함)로 택배 발송		
아이돌봄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정부 지원금 보조(일부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본인부담 100% (https://idolbom.go.kr) 참조 / *신청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관내 5년 이상 거주 - 넷째자녀 이상 고등학생 - 다섯째자녀 이상 대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재학중 학자금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다자녀우대카드)	관내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만18세 이하 자녀 및 부모	주차장·체육시설·수영장(안산도시공사) 여성비전센터·주민자치센터 등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카드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산 임신부 행복플러스카드	관내 거주하는 임신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18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선정 ※ 지원규모 : 연 60가정	1가구당 월 2회 가사서비스 (청소, 세탁, 설거지) - 월~금 09:00~18:00 중 4시간 (오전/오후), 회당 본인부담금 5천원 ※신청 상담문의 :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495-5844)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내 거주하는 자(부모)의 셋째 이상인 자녀 ※ 거주기간 요건 없음	월 3만원(만5세까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다자녀우대카드)	두 자녀이상 가정 만15세미만 자녀	공공시설물, 미술관, 도립공원, 학원 등 각종 할인혜택 *신청 : 농협(가족관계등록부 지참)		농협은행 안산시지부 (☎401-0640)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세자녀 모두 만18세미만) ※ 자동차 등록일부턴 1년 이내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취득세 전액 감면 - 5인승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 그외 차량		차량등록사업소 (☎481-3544)
수도요금 감면	관내거주 3자녀 이상 가구 (셋째가 19세 이하)	개별검침 가구 - 20톤 이상 사용시 1단계요금 적용 공동주택/다가구 - 표준량이상 사용시 1천원 정액감면 (http://water.iansan.net요금민원참조)	상하수도사업소 (☎1666-1234)	
장애인가정 출산금지원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장애등급 1급~3급 : 100만원 이내 / 장애등급 4급~6급 : 70만원 이내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 70만원 이내 ※타법령에 의한 중복지원자는 차액을 지급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481-227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1~6급)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사산 포함)시 지원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구청 주민복지과 (상록 ☎481-5214) (단원 ☎481-6212)	
저소득층 해산비용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여성에 60만원 지원		

산전 산후 출산지원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	문의
난임부부지원사업	안산시 거주자(주민등록)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체외·인공수정기술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최대 10회 지원(신선4,동결3,인공3)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4) 단원보건소 모자건강팀 (☎481-2554)
임산부지원사업	관내 임신부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지급 / 임신16주~분만 전 : 건강관리 및 철분제 지급 / 임신24주~28주 : 임신성당뇨 및 빈혈검사	
주·야간 출산준비교실운영	등록 임신부 중 16주이상	행복한 임신·출산, 산후관리, 스마트 모유수유, 신생아케어, 꽃 태교, 임신부 우울증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산시 거주자(주민등록)로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소득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지원(본인부담금 有) -산모 영양관리(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관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 지속 거주하며 안산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가정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지원	결혼예정 및 생애 첫 임신 전 부부 (부부 중 한사람만 등본상 주소지가 안산시민이면 가능)	혈액검사 9종, 뇨검사, 흥부x-선 촬영	
전동유축기지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관내 셋째아 이상,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산모	전동유축기 1개월 무료대여	
모유수유 가정방문	관내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산모	모유수유 전문가 1회 가정방문	



영유아 건강관리	관내 0세~만12세 영유아	BCG,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뇌수막염, 폐렴구균, 수두, MMR, A형간염, 일본뇌염, Tdap(Td), 인플루엔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4 단원보건소 모자건강팀 ☎481-2554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안산시 거주자(주민등록)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선별검사(입원) : 무료 / 선별검사(외래) : 본인부담금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관내 만 66개월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출산부, 수유부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정	체계적인 영양교육, 보충영양식품 제공,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	안산시 거주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신청가능	영아 1인당 - 기저귀 월 6만 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월 8만 6천원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관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분만전출혈,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다증,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미숙아 의료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중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최고 지원한도:1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이내 입원 수술한 신생아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최고 지원한도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신생아	출생 후 6월 이내 외래로 검사한 검사비 중 (일부)본인 부담금 (최고 지원한도 4만 1천원)	



보육지원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	문의		
아동수당	만 6세미만(0~71개월) 아동 ※ 2019.9월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으로 대상 확대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481-2319)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정부지원금액			
		연령	보육료(원)		
			종일반	맞춤반	
			만0세	45만 4천원	35만 4천원
만1세	40만원	31만 1천원			
만2세	31만 1천원	25만 8천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만3~5세 누리과정 아동	정부지원금액 : 22만원(월/인)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481-2304)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	취학 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정부지원금액 : 46만 2천원 (월/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가정·협동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누리과정 아동 중 경기도에 주소를 둔 아동	실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간 차액 지원 지원금액 : 6만 6천원~8만 9천원(월/인)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형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영유아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포함)이내 신청하는 경우만 출생일로 소급지원	지원금액		보육지원팀 (☎481-3323) (☎481-3325)	
		연령 (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원		20만원
		12~23	15만원		
		24~35	10만원		10만원
		36~47			
48~86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자격 : 안산시에 체류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외국인 아동 · 지원기간 : 체류 기간 동안 지원 (안산시거주 3개월 이상 익월부터 지원함)	지원금액 : 월 22만원(월/인) 지원방법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교육청소년과 (☎481-3453)		
유치원 외국인 원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 지원자격 : 아동이 안산시에 90일 초과하여 주소를 두고 아동(만3세~만5세)이 관내 유치원을 이용하는 등록 외국인 가정 · 지원기간 : 체류 기간 동안 지원	지원금액 : 사립 22만원, 공립 6만원(월/인) 지원방법 : 유치원으로 입금 신청방법 : 보호자가 유치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아동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각 1부) 제출			

공공기관 출산지원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	문의
전기요금 감면	3자녀이상 또는 5인가족(대가족)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수 기준)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6천원 한도)	한국전력 (☎123(국번없이))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6천원 한도) ※ 신청월분(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월분까지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수 기준)주민등록등본	취사전용 420원 감면 취사·난방 (12월~3월) 6천원 감면, (4월~11월) 1천650원 감면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주택 및 전세자금 지원	3자녀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다자녀가정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건설량의 10% 이내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금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지원금액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신청 및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관내 거주하는 임신부(분만 전) ※ 하모니콜센터 신청(임신확인서 제출)	안산시 거주 중인 임신부는 병원 이용 시 월 2일(왕복 2회/편도 총 4회), 편도이용요금 100원 ※ 월 2일(왕복 2회/편도 총 4회) 초과 시 기본요금(1,200원) 이용 가능	안산도시공사 하모니콜센터 (☎1588-5410)



엄마, 왜 흑인과 인사하면 안 돼?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내 피부 때문이라면 오직 나를 만든 신에게만 그 이유를 물을 수밖에’



분쟁 등을 해결해 주는 미카엘 신부의 업무에 비해 매우 허름하고 열악했다. 인도사람인 미카엘 신부는 필리핀 국적의 노동자를 도우며 겪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유쾌하게 들려줬다.

Q. 한국에 온지는 얼마나 되었나?

인도 '말씀의 선교 수도회' 신부이며 한국에 온지는 23년째이고, 여러 지역을 거쳐 안산에서는 3년째 접어들었다.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았고, 이제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Q. 안산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28~29년 전쯤 우리 수도회 신부가 원곡동에서 새벽 미사를 다녀오는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노동자가 배회하는 것을 보고 안산에서 사무국을 만들어 일을 하게 됐다.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인의 날처럼 축제가 있는 날이면 1천여 명이 모였지만, 현재는 일자리와 주거환경 때문에 150여 명이 모여, 많이 흩어졌다고 볼 수 있다.

Q. 안산에서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한국에 온 지 여러 해 지나도록 안산에 와 본적은 없었으나, 소문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안산에서 사네마네하면서 사는 곳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직접 와보니 좋은 사람이 더 많은 도시였다. 예를 들면 모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필리핀인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건이 있었는

데,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비롯해 장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80%의 월급과 치료비를 준 것을 보고 감동 받았다. 또 다른 기억은 아직도 한국에서는 인종차별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다. 하루는 전철에서 초등학생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모가 흑인에게 함부로 인사하지 말라며 호통 치는 것을 보고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5월 16일 오후 3시 단원구 원곡동 보성상가 2층에 위치한 갈릴레아 외국인노동자 사목센터를 찾았다. 지도신부 미카엘 인바리스 신부는 복도까지 나와 있었다. 까만 피부에 선한 눈망울을 가진 미카엘 신부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내 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Q.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한국에는 너그러운 사람, 인상 깊은 사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나를 영적 지도자로 대접해주며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상담해오면 아낌없는 대화를 통해 삶의 교류를 하는 것이 보람이다. 이런 교류를 통해 그들이 평화와 행복을 얻는 것을 보며 가장 큰 보람을 얻기도 한다. 인도인이지만 필리핀인을 위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한국인의 애로사항도 함께 나누며 웃고 울 수 있는 것이 순수한 봉사자로서의 보람이다.

Q. 일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본국 수도회의 정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3년쯤 더 하고 싶다. 사무국의 공동체 대표로서, 이제 업무에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근로자들의 지도자로 삶의 애환을 나누며 영·육적으로 의지가 돼주고 싶다.

Q.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축하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근로자에게 외롭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한국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국을 예로 들면 언어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마치 차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차별이 없다. 미국의 첫 흑인 신부가 말씀하신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내 피부 때문이라면 당신은 오직 나를 만든 신에게만 그 이유를 물을 수밖에’

Q. 안산 시민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외국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4%가 외국인인데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으며, 국제결혼도 늘어날 추세인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 배려, 인내심,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발전시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의 : 갈릴레아 외국인근로자 사목센터(031-494-8411) /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⑥



보르쉬



다문화 음식거리에는 품격 있는 김치찌개 ‘보르쉬’가 있다

해외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그 리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다문화마을특구인 단원구 원곡동을 방문하는 것이다. 국경 없는 마을 원곡동에서 현지를 느낄 수 있는 외국 음식을 소개한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보르쉬’는 러시아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즐겨먹으며 집이나 식당에서 가장 흔히 제공하는 수프이다. 우리나라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처럼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찌개로 생각하면 된다.

김치찌개와 비슷한 맛은 처음 먹은 한국인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보기 어려운 김치찌개와 달리 보르쉬는 공식 연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음식의 품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곡동에 위치한 식당 모습은 한국에서는 일반 음식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Bar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보르쉬는 채소, 고기, 빵 등으로 육수를 만들고, 비트를 잘게 썰어 기름에 볶는다. 감자, 양파, 당근, 양배추 등의

채소를 먹기 좋게 자른 뒤 소고기, 돼지고기 등 고기와 함께 육수에 넣는다. 이후 후추와 토마토소스를 이용해 마무리한다. 비트와 토마토소스 때문에 국물은 진한 자주색을 띤다.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 비트는 보르쉬가 붉은색의 내 데 큰 역할을 한다. 비트는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고 LDL콜레스테롤과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어서 고혈압과 혈관질환을 막아준다. 러시아인들이 보통 점심에 보르쉬를 즐겨 먹는 까닭은 활동이 왕성한 낮 시간에 영향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보르쉬는 하얀색 소스와 함께 제공되는데, 요거트와 비슷한 맛을 내는 스메타나라는 우유로 만든 사워크림이다. 이것을 한 숟가락 넣어 먹는데, 붉은 자주색의 보르쉬에 하얀색의 스메타나가 들어가면 분홍색으로 변한다. 분홍색의 음식이 다소 어색할 수 있으나, 한번 먹으면 추운 겨울이면 또다시 떠오를 것이다.

인차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옆집에 사는 예술가’(8)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공간이 활짝 열렸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해온 ‘옆집에 사는 예술가가 지난해 안산에 터 잡은 작가들의 삶의 철학, 작품세계, 작업과정을 나누는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했다. 안산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열 두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이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이동수 작가

1997년 정착해 20년 넘게 안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동수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단원구 고잔동 덕성초교 사거리에 위치한 작업실에는 현대미술의 특징인 ‘반복성’이라는 테마를 다루어 온 그의 탐구 노력이 깊이 배어 있다.

이동수 작가 : 형태와 이미지 반복으로 자기철학을 말하다 형태의 반복구조 속 시대와 공간 들여다보기

충남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이동수 작가는 홍익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후 같은 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 단성갤러리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스위스 등에서 30회 넘게 개인전을 했으며 그리스 아테네 ‘한국 국제미술협회전’, 캐나다 밴쿠버 ‘국제작가회전’, 스위스 제네바 ‘국제아트페어 특별전’ 외 150회 이상 단체전에 참가했다. 그의 작품은 중국 서안민속박물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안산지방검찰청, 안산시청 등에 소장되어 있다.

대학 시절 극사실주의 회화를 그린 이 작가는 ‘예술가로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고민 끝에 자유로운 표현을 찾아 추상에서 반구상·반추상으로, 대중의 감상보다는 관객에서 작가 중심으로 이동한 자기철학의 현대미술을 깊이 연구한다.

10여 년째 꾸준히 작업해 온 옥새 연작은 임금의 ‘옥새’를 통해 시대상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드러낸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CD(Compact Disc: 음악, 데이터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광디스크) 작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반복성’을 드러낸다. 이동수 작가는 “이 반복성이 바로 현대미술의 특성을 규정해 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했다.

현대인으로서 작가는 시대의 흔적을 찾아 과거 한국적인 이미지들을 작품으로 끌어낸다. 도자기와 다관, 임금의 용포와 옥새,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 등을 CD와 접목시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명령의 실행·저장을 반복하며 수없이 복제되는 CD는 시대적 대표 산물입니다. 음악이나 영상물을 포털이나 유튜브로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CD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과거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물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라며 작가는 현대회화가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이동수 작가는 환경 미술대전·소사벌 미술대전·나혜석미술대전 운영위원, 관악미술대전·단원미술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충남대와 홍익대, 한서대, 신라대, 전북대, 동서대, 창원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영상미디어협회 회원, 안산미술협회 수석부회장, 안산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미술·공연·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발전가능성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며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 문의 : suntera9427@naver.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상징-공간성, 2010

‘평범한 이웃들의 특별한 그림책 한번 보실래요?’

안산 시민들이 만든 그림책 전시회



누구나 학창시절 문학도를 꿈꾸던 시기가 있다. 한 가닥 뜨거운 심지를 품고 있지만 현실과 세월 속에서 사그라진 그때 열정이 그림책으로 태어났다.

중앙도서관은 지난해 ‘2018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나의 첫 그림책’이라는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모두 19회에 걸쳐 송미경, 김중석, 유설화, 김인자 등 그림책 작가들이 글쓰기, 그림 그리기를 지도했고, 1인당 1권의 그림책을 완성했다. 참가자들은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 어린 시절의 추억, 퇴사 후 제2의 인생 등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그려내 더욱 뜻깊은 그림책을 얻었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19명의 참가자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한때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 여러 선생님들과 중앙도서관의 도움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나의 책이 생겼다는 게 꿈만 같다”고 기뻐했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진 책들은 올해 시민에게 직접 선보이고자 순회 전시를 하게 됐다.

5월부터 시작된 그림책 전시는 원곡동에 위치한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관내 도서관 8곳에서 이뤄진다.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 만난 시민 박주희 씨는 “이런 책은 전문작가들만 만드는 줄 알았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난 분들이 부럽고 대단하다”며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 보고 싶다”고 했다. 탁서하(초등6) 어린이는 “그림이 너무 예뻐서 작가님이 만든 줄 알았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그림책을 만들면 좋겠다”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5월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전시 이후에는 6월 본오도서관, 7월 관산도서관, 8월 근로복지작은도서관, 9월 반월도서관, 10월 감골도서관, 11월 해양동작은도서관, 12월 본오1동작은도서관 등 순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868)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안산시 관산도서관

‘전통과 다문화 책 잔치’

관산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19년 전통과 다문화 책 잔치’를 6월 1일 연다.

‘2019년 전통과 다문화 책 잔치’는 우리의 명절 단오를 기념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해 내·외국인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오색실 장명루 만들기, 전통문양 거울 키링 만들기, 목공예 미니어처 그네 만들기 등이 있다. 한옥어린이자료실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스토리텔러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은 각 나라 출신의 스토리텔러와 함께 하는 세계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세계전통의상 착용 후 멕시코, 태국, 페루 순으로 문화체험이 진행된다.

3개국의 문화 알기와 더불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멕시코 망자의 날 체험, 태국 전통결혼식 체험, 라마 열쇠고리 만들기 등의 경험을 통해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관산도서관(031-481-3853)

“단원구에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의 공간이 열린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개관식, 성황리에 진행



안산시 단원청소년수련관이 5월 1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은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2015년 공사에 들어가 올 4월 1일 준공됐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내부에는 190석 규모의 공연장과 농구,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등 층마다 각종 프로그램실이 있다. 외부에는 풋살장 2면, 농구장 시설 등 운동시설도 갖춰졌으며, 청소년 전문기관인 (재)안산시청소년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개관식에는 청소년, 학부모 등 관계자와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경국 단원청소년수련관 관

장이 무대에 올라 건립 추진경과를 보고했고, 건립에 기여한 관계자에 대한 표창 시상도 이어졌다. 김희삼 (재)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과 청소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단원청소년수련관은 ‘STEAM’ 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고, 이에 맞서 나가는 리더가 양성되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STEAM(융합인재교육 · 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Arts · Mathematics) 교육은 ‘상황적 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교육이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이를 위해 VR · AR체험관을 조성하고, 3D프린터 등을 활용해 단순 ‘따라 만들기’ 교육이 아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창의능력을 키우고 자기주도 활동 경험을 제공해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 이어서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열정 유(有)’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차장, 풋살장 등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하는 체험부스와 버스킹 공연이 진행됐고, 특별강연과 미술,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공연팀으로 참여한 한 청소년은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청소년 공간이 생겨 기대가 되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해보고 싶다”며 “평소 공연을 위해 무대에 서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런 청소년 행사와 청소년 활동 공간이 많아져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문의 : 안산시 청소년재단(031-412-1763)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제9회 2019 ASAC공연예술제

한달간 펼쳐지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극장 열전!

안산문화재단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예술축제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ASAC공연예술제가 6월 7일부터 29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열린다. ASAC공연예술제는 안산문화재단과 안산 지역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예술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연극’ 중심이었던 지난 ASAC공연예술제와는 달리 장르의 폭을 넓혀 다양한 공연예술단체들에게 ASAC공연예술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무용, 연극, 마임컬(마임+뮤지컬)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다양한 장르의 4팀이 선정되었다.

ASAC공연예술제의 첫 번째 공연은 탄프로젝트의 ‘거리의 악사’로 빌헬름 뮐러의 ‘겨울 나그네’의 방향을 통해 현 시대 젊은이들의 현실과 방향, 포기, 죽음 등을 통찰하고 새로운 해석과 희망을 조망해 보는 공연이다. 슈베르트의 가곡과 탱고, 그리고 전통악기인 해금연주와 현대무용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

두 번째 공연은 2018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극단 송곳의 ‘러브 앤 피스’로 80년대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러브 앤 피스는 당시의 사건을 고발하거나 폭력 시위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보다는 당시 스무 살 청춘들이 느낀 혼

란과 평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라이브 음악으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세 번째 공연은 ‘마임컬(마임+뮤지컬)’ 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선정된 마블러스모션의 ‘MOON’이다. MOON은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리드미컬한 움직임과 화려한 영상, 오브제 등을 통해 보여준다. 죽은 이들의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난버벌 뮤지컬이다.

마지막 공연은 2년 연속 ASAC공연예술제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극단 동네풍경의 ‘고수를 찾아서’이다. 고수를 찾아서는 2016년 대학로 소극장 혜화당에서 열린 ‘단단체스티벌’에서 초연되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노동자와 고용주(기업)로 대표되는 이 시대 ‘갑과 을’의 관계를 무협액션의 틀을 갖춰 사회 부조리에 대한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연극이다.

안산 우수 극단들이 펼치는 소극장 열전 ‘ASAC공연예술제’의 관람을 희망하는 관객은 최대 50%의 패키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안산시 청소년 관람료 지원사업인 키움티켓 신청 시 1인 5천원으로 관람 가능하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www.ansanart.com)



6월 21일~22일 ‘moon’



6월 7일~8일 ‘거리의악사’



6월 14일~15일 ‘러브앤피스’



6월 28일~29일 ‘고수를 찾아서’



단원보건소 조부모 손주사랑 육아교실 참여자 모집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예비조부모 및 조부모를 위한 조부모 육아교실을 6월 12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에 단원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에서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육아에 참여하는 조부모가 늘고 있으나, 시대변화에 의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기를 양육했을 때와 달라진 육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아기 마사지, 아이와 놀아주는 법, 분유 타기 및 아기 목욕법 등 조부모 육아에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교육내용은 단원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또는 전화(481-6472, 6473) 신청(선착순40명)하면 된다.

또한, 단원보건소는 조부모 육아교실 이외에도 16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준비교실과 태교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안산시, 18만5천명 대상 국가암검진 적극개입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 대책 마련

암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기관명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암초진검진소 또는 위암시범검진소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암검진
자궁경부암	만 3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염 보유자 *간암 가족력 보유자	6개월	간초진검진소·혈청알파태아단백질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2년	대장암검진소·대변검사

대형마트(분별할매장사)를 방문하기는 결핵기관(병원)에 제출
상록수보건소(031-481-5929) 연락주시면 대변검사를 무료로 보내드리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대변검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정된 검진기관(병원)을 이용하세요. (개인, 집단기관 불가)
- 기관명(주소)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연말에는 검진대역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사전에 예약 후 검진하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무료 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 481-59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가암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진 대상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사망률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을 경우 지원기준에 의해 연간 최대 200~220만원 의료비지원 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안산시의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잦은 폭염발생 등으로 예년 보다 약간 낮은 41.9%의 시민들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산시는 검진대상자 18만5천명을 대상으로 채번통과 함께 검진안내문 우편발송 및 SMS 전송 그리고 대형마트 등 암검진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적극 개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52), 단원보건소(031-481-6622) 방문 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알아두면 좋은 보건소 소식! 건강 알림 마당

A형간염 예방접종

- ◇ 2012년 이후 출생자 :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 지원
· 1차접종 : 생후 12~23개월
· 2차접종 : 생후 24개월(1차접종 6~12개월 후)
- ◇ 2012년 이전 출생자 :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 가능
-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86), 단원보건소(031-481-6363)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이 마지막 여생을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도움을 주고 사별가족의 슬픔까지도 함께하는 총체적 돌봄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실현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모집기간 : 2019. 6. 3.(월) ~ 14.(금)
 - ◇ 교육일시 : 2019. 6. 17.(월) ~ 19.(수), 3일간
 - ◇ 교육장소 :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2층 강당
 - ◇ 교육대상 :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선착순 20명
 - ◇ 접수 : 전화등록 및 방문접수
 - ◇ 교육비 : 무료
 - ◇ 문의 :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 서예진(031-8040-5130)

6·25 전사자 유가족찾기 사업 신청 안내

- 안산시 보건소에서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가족을 위해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사업'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대상 :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까지
 - ◇ 기간 : 연중
 - ◇ 준비서류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택일
 -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필수, 무료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지참
 - ◇ 문의 : 상록수보건소 (031-481-5942), 단원보건소(031-481-6364)

노인폐렴 무료 예방접종 안내

- ◇ 접종대상 : 만 65세이상 어르신(1954년생, 생일 상관 없음)
※ 만 65세 이후 노인폐렴예방접종(폐렴구균23가 다당질백신)을 하지 않으신 분
- ◇ 접종장소 :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 ◇ 접종비용 : 무료
- ◇ 접종기간 : 매주 월~금요일 연중 실시 (2019년 6월 30일까지)
- ◇ 접종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12:00~13:00 점심시간으로 제외)
- ◇ 접종횟수 : 만65세 이후 한 번 접종으로 평생 면역 획득
- ◇ 준비물 : 신분증
- ◇ 문의 : 단원보건소(031-481-6475~8), 상록수보건소(031-481-5971~3)

청소년 척추측만증 체형교정 대상자 모집 안내

- ◇ 기간 : 2019년 5월 ~ 12월
- ◇ 인원 : 40명 (2019년 20명, 2020년 20명)
- ◇ 대상 : 척추측만증 의심자 또는 진단자(단원구 거주 초등 4학년 ~ 중학 3학년)
- ◇ 접수방법 : 학부모 단원보건소 3층 물리치료실 방문 신청 또는 전화
- ◇ 2차 상담 : 개별 상담 후 대상자 확정 개별 통보
- ◇ 접수처 : 물리치료실
- ◇ 프로그램 운영(무료) : 매주 수요일 1회, 총 46회
- 장소 : 단원보건소 3층 물리치료실
- 강사 : 척추측만증 전문 물리치료사 2명(다빈치아카데미)
- 1팀 : 6월 ~ 10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5시 30분
- 2팀 : 6월 ~ 10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7시
- ◇ 문의 : 단원보건소 물리치료실(031-481-6624)

상록수보건소 슬링운동교실 2기 참가인원 모집

- ◇ 기간 : 2019. 6. 12. (수) ~ 8. 4. (수)
- ◇ 일시 : 매주 수요일(A반 : 오후1시 30분~2시 30분, B반 : 오후2시 40분~3시 40분)
- ◇ 장소 : 상록수보건소 1층 재활보건실
- ◇ 대상 : 스스로 운동이 가능한 1~6급 장애인
- ◇ 내용 : 전문 강사(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개인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 ◇ 문의 : 상록수보건소 재활보건실(031-481-5633)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율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동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마을계획 시즌2, 사동 마을계획실천단 발대식 열려



사동 마을계획실천단 단체사진

5월 8일 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동 마을계획실천단(마을계획) 발대식이 열렸다.

마을계획은 참여 주민들이 마을의 현황과 자원을 알아가며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고, 실천과제를 주민 스스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사동은 지난 2015년 다가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계획 시즌1을 진행했고, 올해는 아파트 지역을 포함한 사동 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마을계획 시즌2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시즌2에는 관내 직능단체와 주민모임, 4개 학교 학부모회 연합으로 구성된 사동주민협의회 주관으로 마을계획이 진행돼, 더 많은 주민과 함께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 가게 된다.

이영임 사동주민협의회 부회장은 "사동 지역 전체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올해는 사동

의 5년, 10년 뒤의 미래를 그려보고, 마을 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마을의 변화를 끌어내 보고자 한다"며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함께 연계해 더 많은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마을계획 강의를 맡은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은 "마을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이 함께 비전을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생길 때 마을계획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 25개 동 중 최초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을계획 시즌2를 진행하며, 시즌1과 비교해 3배의 사람들이 참여한 사동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계획은 5월 한 달간 동네를 돌며 마을의 문제를 찾아내고, 현장조사로 발굴된 이슈를 제안해 설문조사 항목도 만든다. 이후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6월 29일 열리는 주민원탁회의를 통해 3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제안한다. 사동은 2016년에 주민들이 함께 만든 '세대 공감 공존을 꿈꾸는 푸른 숲 사동'이라는 마을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했다. 이어 분과별로 의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해 2020년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부곡동

**세계 책의 날·과학의 날 기념 다양한 행사 마련
안산부곡초등학교, 나만의 대출증 만들어요!**



안산부곡초등학교는 세계 책의 날의 유래인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 세인트 조지의 날처럼, 책을 빌리는 사람에게 예쁜 장미꽃을 나눠 주면서 세계 책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나무와 패를 이용한 나만의 대출증 만들기로 학생들에게 독서의 흥미를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대해 알게 돼서 좋았어요. 책을 빌리는데 장미꽃을 나눠줘 선물은 받는 기분이라 기뻐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대출증이 아닌 나만의 특별한 대출증을 만들어 특별해진 기분"이라며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대한 느낌을 말했다.

부곡초는 또한 5월 과학의 달을 맞아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열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에 흥미를 갖고 개인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 모두에게 골고루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일일교사를 통해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교실에서는 각 학년별로 수준별 체험 활동을 하고, 운동장에서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나눠 각각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사전안전교육과 질서 있는 진행으로 수준 있는 진행이 이뤄졌으며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았다.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본오3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본오3동 손뜨개질로 치매 예방해요"
상록수치매안심센터와 협약도 체결...치매 검진 및 상담**



상록구 본오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관내 경로당 2곳(양지, 장수경로당)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치매 예방사업으로 손뜨개질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양지경로당을 시작으로 장수경로당 강좌를 진행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손뜨개질 활동을 통해 인지력이 향상돼 치매와 우울증 예방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우리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발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오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산시마을만들기센터 공모사업에 제안해 당선된 사업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관내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손뜨개질 방법과 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4일에 상록수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추진 시 센터에서 치매조기 검진 및 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 협조해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상길 주민자치위원장은 "본오3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만큼 추후 장애를 지닌 노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찾아가는 서비스의 형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와동

와동종합사회복지관 폐지 줄는 어르신 돕는 프로그램 진행



행정동 가운데 노인인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이다. 상대적으로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비중도 크다. 폐지를 줍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도 2017년 한 해 9명에 달했다.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희망의 손수레' 사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를 초빙해 폐지 수거 시 보행 안전과 건강기능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으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위생·건강관리를 돕는다.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에게 눈에 잘 띄는 형광조끼를 제공하고 '골목길에서는 한 쪽으로 다니기', '녹색신호등에 건너기', '신호등 없는 곳 무단횡단 금지', '어두운 밤 외출 시 밝은 옷 착용하기'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와동복지관은 폐지 줄는 어르신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홀로 거주하면서 외로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지지하도록 돕는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양혜원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를 만드신다"며 "어렵고 외로우신데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관장은 "어르신들에게 안전과 희망을 선물하는 일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린다"며 "안전장비·생활안전용품 구입을 도울 후원의 손길이 간절하다"고 했다.

◇문의 : 와동종합사회복지관(031-475-432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비가 온다고 설 수 있겠어? 라면 하나 살 돈이 없는데..."
김영현 어르신이 하루 8~10시간 폐지를 줍고 수중에 쥐는 돈은 8천원 남짓, 한 달 내내 일해도 30만원 이내다. 그래도 어르신은 폐지 수거를 그만둘 수 없다.
"월세도 내야지, 공과금도 내야 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잖아. 이거라도 해서 살아야지 어찌겠어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가야지."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폐지 줄는 어르신 중 57%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으로, 경제적 어려움 탓에 폐지 수거는 생계를 위한 필수가 됐다. 와동은 단원구 전체 12개

아파트 비정규직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안산시 상생 아파트 협약식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도 우리 아파트 공동체 일원입니다'

선부3동

시민들의 주요 주거 공간인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지만 그 곳을 일터로 살아가는 경비·청소 노동자에게는 그곳이 곧 삶의 터전이고 사업장이다.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청소 노동자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실천과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 5월 21일 단원구 선부동 동명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아파트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안산시 상생아파트 협약식'을 열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안산시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초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아파트를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산시 안심아파트'로 선정하였다. 2018년 기준 15곳이 안심아파트로 선정됐으며, 안심아파트 중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쉼터가 열악한 곳들을 선정,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해 쉼터환경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안산로터리클럽,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았다.

협약식이 진행된 동명벽산블루밍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쉼터는 제대로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시멘트 벽면에서 계속해 시멘트먼지가 날리고 노후한 전기배선 등 환경개선이 시급했다. 연계 기관들은 위험하고 울퉁불퉁한 벽면에 대해 정리와 도배, 시멘트 먼지와 쓰레기를 걷어낸 후 바닥에는 장판을 깔았다. 낡고 칩침해던 형광등은 LED등으로 교체하고 낡은 전선들도 정비했다. 협약문에는 '경비청소 노동자의 적절한 휴식공간 마련과 고용안정,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도 동명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먼저 챙겨야 했는데, 이렇게라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분들의 쉼터를 개선하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우리아파트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관심 갖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031-411-2323)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시의회! 더 나은 안산을 위해 지금은 연구 중!

‘사통팔달 안산을 위한 연구모임’ 산단 공동 통근버스 개선 방안 모색

5월 21일 산단공 측과 간담회 열어 홍보 강화 등 공동 통근버스 이용객 증대 방안 논의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통팔달 안산을 위한 연구모임’이 안산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영 개선을 위해 한국 산업단지공단 측과 머리를 맞댔다.

사통팔달 연구모임의 윤석진, 김정택, 강광주 의원은 지난 5월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방문해 공단 및 안산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들과 이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교통 문제에 있어 안산스마트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현재 운행 중인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가 교통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작용해서다.

안산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는 스마트허브 내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단공, 경기도, 안산시가 연계해 운영하는 버

스다. 지난 2016년부터 5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무 시간 변경 등으로 퇴근 노선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경유 노선의 조정과 배차 간격 홍보 강화, 기업의 자체 통근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버스 이용 편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이용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향후 지자체 단위의 추가 지원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아울러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공단의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입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산단 측도 의원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노선에 따라 버스 소형화로 증차를 검토하고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 어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통팔달 안산을 위한 연구모임’이 5월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운영상의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모두 꽃이다’, 현장 간담회 개최

5월 20일 ‘나는 카페’서 장애인 학부모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모색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가 5월 20일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는 모두 꽃이다 팀의 정종길 현옥순 유재수 이진분 의원과 장애인 학부모 3인,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평생학습관 1층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 시설 ‘나는 카페’에서 열렸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셔틀 버스 등 장애인의 이동 수단과 장애인 관련 시설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장년층 이상 연령대의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도 참석한 학부모들의 공통된 걱정거리였다. 한 학부모는 자신이 더 늘

거나 사망했을 경우 남겨질 장애인 자녀의 안위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에 집중된 의원들은 시설 운영비로 차량을 렌트하는 방안과 탈시설화 정책에 맞게 공동생활가정 등의 소규모 시설을 확대하는 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성인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중장년층을 위한 성인 주간 보호 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단발성 연구가 아닌 의정활동 기간 내내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가 5월 20일 안산시 평생학습관 1층 ‘나는 카페’에서 장애인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 중 한 장면.

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연구 활동의 진정성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 어린이시설 타 지자체 현장 방문

안산이 보다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수집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이 5월 17일 타 시의 어린이 체험시설 견학에 나서며 안산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월에 추진된 현장활동과 4월 30일에 개최된 간담회와 연계하여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광명시 달맞이 어린이공원, 서편 어린이공원, 시흥시 상아공원, 제1호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타 지역 어린이시설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현장활동에서 최근 극심한 미세먼

먼지로 야외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첫 번째 방문한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체험장이 어떤 부분이 보다 아동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자리매김했는지 파악하는 데에 집중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권터 벨치히 놀이터 디자이너가 참여해 조성한 시흥시 제1호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에서는 기존 상업 실내놀이터와 차별화된 특별한 점은 무엇이며 향후 안산에 적합한 아동친화도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이 5월 17일 어린이 놀이 관련 시설을 방문해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했다. 사진은 이날 현장활동 중 한 장면.

모델을 제시할 노하우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단체 의원들의 이번 현장방문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 수차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병행해 연구에 대한 높은 의욕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볼맛 나는 소식지 안산톡톡을 응원합니다!



※ 시정소식지의 새 이름은 시민 여러분의 공모와 선호도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 안산시 페이스북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정소식지 제호 변경을 축하해요! '안산톡톡'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식과 안산시의 행복 소식을 함께 하고 싶어요. 읽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행복한 소식을 많이 전해주세요!
-이☆선

안산 시정소식지 제호가 안산톡톡으로 새롭게 바뀌었네요! 새로 바뀐 명칭이 더 공감이고 귀에 쏙 들어오네요! #안산톡톡을 통해서 안산의 새로운 정보와 반가운 소식을 가득 담아 전해주시길 응원할게요!
-김☆혜

안산 시정소식지 제호 변경을 우레와 같은 박수로써 축하드립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서 보다 더 가까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안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창

브라보안산도 좋지만 #안산톡톡 이란 이름으로 더욱 좋은 이름이 되었네요. #안산시청의 #톡톡 튀는 센스 앞으로도 응원 할게요. 그리고 홍보만화(?)도 두캐릭터의 각자 개성이 넘치고 귀여워요!
-정☆호

앞으로도 많은분들이 안산시의 유익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안산톡톡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안산톡톡의 열혈팬이 될게요
-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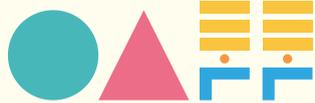
안산시 시정소식지 제호 변경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곧 다가오는데 안산의 여름 어떤것들이 있을지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도 기대할게용 ^^
-김☆란

안산톡톡 -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얻은 적극적인 느낌을 줘서 참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공유가 되는 활기찬 그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오☆호

★★★★★
안산시청 시정소식지 제호 변경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윤

안산시청 시정소식지 제호 변경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당연히 응원 팍팍 합니다. 유익하고 꿀같은 정보 아낌없이 퍼주세요. 매번 히트 히트하길.
-심☆미

안산톡톡



시정소식지 제호 변경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금까지 언제나 누구든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멋진 안산톡톡이 되기 바랍니다.
-채☆희

안산톡톡 소식지 제호변경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폐친과 안산시민들과 함께 톡톡하는 안산시청이 되시길 응원하고 기대할게요^^ 안산톡톡 소식지에 바라는 점은 말이죠^^ 안산톡톡에서 안산에서 생산하고 재배하고 출시하는 농축산물소식과 이벤트 내용을 많이 올려주세요^^ 축산농가랑 우리 농촌이 잘사는 모습을 보고싶어요^^
-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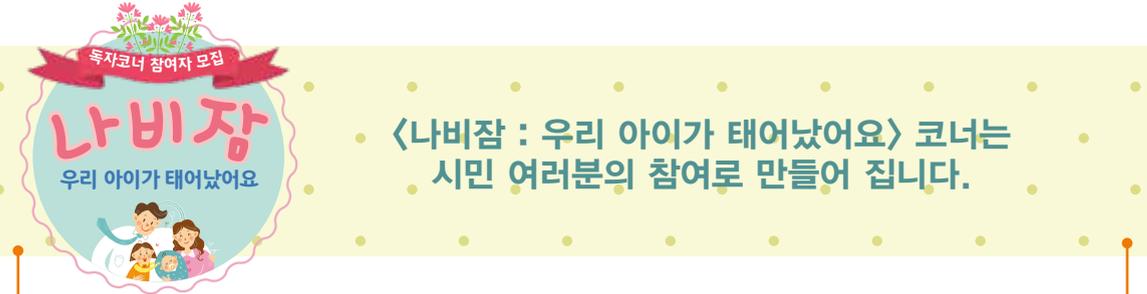
안산톡톡! 외우기도 쉽고 뭔가 깨톡이 생각나면서 깨톡마냥 빠르게 확인 가능할 것 같은 이름이네요 ㅎㅎ 기본 소식, 좋은 정보 가득 구독자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해주길 응원합니다!
-지☆배

'안산톡톡'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안산시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로 소식지를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

안산의 다양한 시정소식을 바로 볼수 있어서 좋아요. 게시물중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생명수호방사단의 활동 소식은 및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의 소식까지 알고 싶은 내용들을 바로 알수 있어서 최고!!
-지☆훈

브라보안산에서 안산톡톡으로의 변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에도 좋은 이름이었지만 새로 바뀐게 훨씬 더 친근하고 기억에 남네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안산에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내용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고 안산을 여행할때 코스나 추천 메뉴 등 즐거운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하고 항상 참고할게요♡
-정☆성

바뀐 이름이 참 좋네요. #안산톡톡 그야말로 안산과 톡톡 더 가까워지는 친근한 이름입니다. 톡톡 두드리고 싶은 안산! 톡톡 더 다가가고 싶은 안산입니다. 바라는점은 시정소식지를 간결하고 쉽게 누구나 편히 알아볼 수 있게 시각성 좋게 발행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지금도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안산시의 사랑이 듬뿍 담겨서 살고 싶은 안산시로 각인되게 참 마음에 와닿게 내놓기 때문입니다.
-민☆기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독립투사 딸내미(?) 딸~

아기이름: 김태희 출생년월: 2018년 9월
태명: 꿀복이 태몽: 아내가 말을 타고 모랫사장을 질주했다

태몽이 마치 독립투사가 말을 타고 만주별판을 달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도무지 여성으로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황당한 꿈을 꾸고 나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가우뚱거리다 "이거, 태몽아냐?"하며 부부가 밥 먹다 말고 환호성을 질렀네요.

우리 꿀복이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잘 울지도 않고 때 쓰지도 않고 어찌나 예쁘지요. 우리 부부는 그런 아이를 보고 "독립투사 딸내미라 뭔가 달라도 다르네"라며 웃곤 한답니다.

이름도 김태희. 예사롭지 않죠? ㅎㅎ

이제 첫딸인데 하여튼 빨리빨리 노력해서 셋을 낳으려고 합니다. 가능할지 모르지만, 워낙 자손이 귀한 집안이라 능력 될 때 얼른 낳으려 합니다. 애국자 되는 거죠. 응원해 주세요.

· 김윤남(상록구 매화로3길)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이

아기이름: 윤혁 출생년월: 2019년 1월
태명: 귀공자 태몽: 커다란 비단뱀이 고향집 초가지붕에 꼬리를...



거서 겪는 여성분들의 고충,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뒤늦게 얻은 아이는 금이야 옥이야입니다. 혹시 아기를 갖고자 하는데 아직 안 생긴 안산시 민들 계신다면 꼭 낳을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용기와 희망 잃지 마세요.

부모에게 늦게 온 게 미안했는지, 이 녀석 귀여운 짓하는 게 장난아닙니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눈웃음은 거의 살인미소입니다. 원빈 저리가라입니다. ㅋㅋ ㅋ 착각은 자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는 말이 있듯이... 내친 김에 하나 더 낳으려고 합니다. 안산톡톡에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우리 아이입니다. 큰 아들 집에 시집가서 노산에 얻은 보물 같은 아이죠. 아이가 안 생

· 박나영(단원구 이삭2길)

책 읽는 안산 / 6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소소한 즐거움, 일상 속의 행복**



나의 여름날

저자 박성은 / 출판사 책고래

어느 시골 마을 아이들의 신나는 여름 나기를 담은 그림책. 햇빛이 짹짹 내리쬐는 날이면 아이들은 큼지막한 대야를 들고 하나둘 냇가로 모여 헤엄을 치고 경주도 하며, 기대어 쉬기도 합니다. 냇가에서의 즐거운 물놀이는 에어컨 바람이 없어도 더위를 까맣게 잊게 하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걱정과 고민도 잊게 만드는 행복한 여름날입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 중입니다

저자 댄싱스네일 / 출판사 허밍버드

오랜시간 무기력과 우울증을 겪어왔던 저자는 무기력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 실린 마음 충전법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유용하지 않아 보이는 생각과 일상 속 소소한 행동들이 생각지도 못한 위로와 즐거움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소소한 행복을 탐하다

저자 양빙 / 출판사 인서트

지구촌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체험한 일상 속 삶의 모습들을 '현지인 집에서 묵기, 시장 구경, 맛있게 남남, 예술, 기웃기웃'이란 다섯 가지 주제별로 위트 있는 그림과 함께 담아낸 책입니다. 영국 첼시, 하와이 카우아이섬, 교토, 오사카, 티베트 등 현지인의 가정집에 머물며, 그곳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를 생생하고도 정겹게 들려줍니다.



특별
기고

안산시민은 억울하다

“안산은 위험한 동네 아닌가요. 무섭다던데” 몇 년 전까지 많이 들었던 말이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냥 사건인데,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 특히 살인 등 강력사건은 언론에 ‘안산 살인사건’ 등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니 안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안산이 무서운 동네라고 생각하기 쉽다. 1993년도에 안산에 와서 지금까지 26년 넘게 살고 있는 나로서는 못내 억울하다.

안산이 과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도시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안산시의 범죄발생률은 타 도시에 비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며, 강력범죄의 경우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의 특성상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 또한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범죄발생률 자체는 내국인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강력범죄,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것은 안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에 따라 계획적으로 건설된 안산시의 경우 외지인들의 유입이 아주 많았고, 대대로 이어온 마을공동체의 질서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점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것은 안산시의 역사가 더해갈수록 안산의 범죄보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안산 ○○사건’

식의 언론보도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안산에 오래 사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웃간의 유대가 높아져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범죄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범죄로 인하여 편견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안산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안산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안산 시민 스스로가 안산을 비하하고, 범죄의 도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안산다, 안산다 하면서 사는 도시가 안산’이라는 우스개도 그만 두어야 한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 안산이다. 사무실 근처에서 소주한잔 하고 걸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좋은 도시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 김성천(변호사)



독자
투고

모든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

오래된 사물함을 뒤지다 보니 아버지 영정 사진이 눈에 보였다. 이미 먼데로 떠나셨지만, 아직도 너무나 보고 싶은 당신.

나는 금산의 강촌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중학교 때부터 대전에 유학 와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대전에서 자취를 하다가 3~4주에 한번씩 부모님께 갔는데 1학년 중간고사 결과 과가 거의 꼴찌인 62/68였다.(68명중 62등) 하지만 나는 그걸 2/68로 고쳤다. 그날 마침 우리집에 놀러 오셨던 마을 어른이 내가 2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이 “자식 하나는 잘 뒀어. 2등이면 어디여? 거진 1등 아닌가?”라고 칭찬 반 부러움 반을 표했다. 위조된 성적표에 속은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후로부터 머리 터지게 공부한 나는 6년 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내로라하는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건실한 사회인이 되었다.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든 날 나는 정말 아버지께 당시 성적표 위조 사건을 사죄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인재(이제) 정신 차렸으면 되었"며 내 말을 막으셨다. 아!! 아버지... 아버지란 누가인가?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걸으려는 “괜찮아, 괜찮아”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울분을 삭히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침이 되면 '밥벌이'를 위해 성급하게 나가는 장소(농촌의 들녘)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그 곳은 피로와 끝없는 농작업의 고된 노동이 기다리는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농사일은 사표를 내도 수리되지 않으며, 휴가나 병가도 없고, 정년퇴직도 없는 자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막걸리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노동의 힘겨움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 위해 일만 하다 떠나셨다.

이제 5월이 가고 있다.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여러분 힘내세요”

· 김세준(상록구 본오동)



독자
투고

5월의 안산

계절의 여왕! 푸른 5월을 지나고 있다. 호수공원에서는 벚꽃의 향연에 이어 진한 라일락이 꽃향기를 날리더니 철쭉이 피며 꽃의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나무에서 파릇파릇 초록 잎새들이 툭툭 피어나는 모습은 싱그러움의 극치를 이룬다. 호수공원 곳곳에 이름모를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커다란 정원을 거니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국제거리극 마지막 날 밤이었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신났다. 하이라이트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광장 곳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생각되었다. 아름다운 불꽃의 축제가 아쉽게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곳곳마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마트와 거리에도 광장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들이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듯 행복한 모습들이었다. 내일 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도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문화광장에서만 축제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중앙역 앞 광장에서도 청소년들의 춤과 노래와 밴드로 발길을 잡았다. 상가 주변에서도 야시장을 열고 품바가 열정적으로 공연되고 있었다. 다른 나라의 축제현장이 아닌 우리나라 안산 곳곳에서 문화공연과 행사들로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5월이다.

푸른 5월에, 그리고 황금연휴에 멀리 가지 않아도, 교통 체증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 특별한 관광지로 가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화려한 공연과 축제를 만끽하고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과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5월의 안산은 화려하고, 마음과 삶에 활력을 주는 변신로봇같다.

· 김주한(단원구 광덕동로)



시민여러분의 생활수기를 모집합니다.

메일_ansannews@korea.kr / 전화_031-481-2042

제1회 안산의 책 독서감상작 전국공모전



- ◇ 기간 : 2019.6.4.~10.11.
- ◇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 ◇ 대상도서 : 2019 '안산의 책' 선정도서 및 후보도서
- ◇ 제출방법 : 방문/우편/이메일/홈페이지 접수

◇ 문의 : 안산중앙도서관 (031-481-3865)
 ※ 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내 삶 속의 도서관 공모전



- ◇ 기간 : 2019.5.14.~9.27.
- ◇ 대상 : 안산시민
- ◇ 주제 : 도서관 관련 경험담
 · 도서관에서 생긴 인상 깊은 에피소드
 · 도서관을 활용하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
 · 도서관을 이용하며 변화한 나의 모습 등

◇ 응모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 문의 : 성포도서관(031-481-3775)
 ※ 제출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성포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미술관 2019 크로스장르전 <코끼리, 그림자, 바람>

- ◇ 기간 : 2019.5.23.~6.23.
- ◇ 장소 :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 ◇ 내용 : 이미지의 움직임으로 시각적 환영을 빚어내는 애니메이션과 작가들의 예술적 고찰을 통해 우리 주변과 내면을 새롭게 인식해 보는 기획전

2019 단원 문화나눔 공연

- ◇ 일시 : 2019.6.22.(토) 19시~21시
- ◇ 장소 : 선부광장 야외무대
- ◇ 참여인원 : 1천여명
- ◇ 출연진 : 안산팝스오케스트라, 동 주민자치센터동아리(4팀)단원구여성합창단, 서울예대동아리(2팀), 초청가수 등
- ◇ 공연내용 : 클래식, 뮤지컬, 난타, 국악, 합창, 뽀리댄스, K팝댄스, 가요 등

이익주교수의 유쾌한 역사인문학



- ◇ 접수 : 2019.6.4.(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http://lib.ansan.go.kr>)
- ◇ 일시 : 2019.6.27./7.11.(목, 총2회) 10시~11시 30분
- ◇ 장소 : 감골도서관 지하 시청각실
- ◇ 내용 : '고려시대 여인의 삶'과 '세종대왕의 뒷 이야기'를 주제로 유쾌한 역사인문학 강연 진행
- ◇ 문의 : 감골도서관(031-481-3704)

안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공연 "W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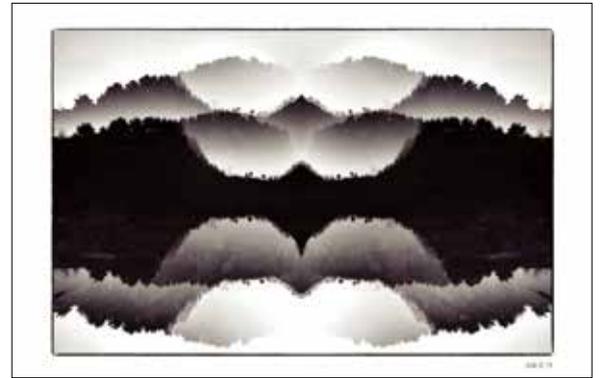
- ◇ 일시 및 장소 : 2019.6.8.(토) 16시 / 노적봉포동 야외무대
- ◇ 일시 및 장소 : 2019.6.15.(토) 16시 / 성호기념관 뒤 야외무대
- ◇ 관람료 : 무료
- ◇ 주최/주관 : 안산시/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생생카셰어



- ◇ 이용일 : 토요일, 일요일, 설날, 추석, 법정공휴일 등(8시~18시)
-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다자녀·한부모가족, 다문화·북한 이탈주민 가정 중 26세 이상 2년간 종과실 사고 경력이 없는 사람
- ◇ 신청방법 : 인터넷(통합홈페이지 : happycar.gg.go.kr), 팩스, 방문접수
- ◇ 문의 : 안산시청 회계과(031-481-2177~8)

2019 포토아르누보(photo art nouveau)



- ◇ 기간 : 2019.6.11.~6.16.
- ◇ 장소 및 시간 : 단원미술관 제2전시관 / 10시~19시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 ◇ 이전 위치 : 안산시청 제2별관 1층(옛 단원보건소)
- ◇ 업무개시일 : 2019.7.1. (월)
- ◇ 문의 : 고잔동행정복지센터(031-481-6602)

생생한 일자리 정보!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가 도와드립니다!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일시 : 2019.6.5.(수)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2019 다문화 다같이 일자리 박람회

- ◇ 일시 : 2019.6.19.(수)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주최/주관 : 안산시 / 안산고용복지+센터
- ◇ 내용 : 구인·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277/2919)

중장년여성 취업박람회

'좋은 일(job) 생기는 날'

- ◇ 일시 : 2019.6.4.(화) 13:30~15:30
- ◇ 장소 : 상록수체육관 1층 대체육관
- ◇ 내용 : 현장면접, 이력서 컨설팅, 직업체험 등
- ◇ 문의 :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31-439-2060)



**나라가 지키는 우리
우리가 지키는 나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 선열
역사에 기록될 모든 분들의 넋을 기리며...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태극기를 보여주세요.

**"스마트도서관"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지하철에서 읽어요! **신간 & 베스트셀러**

스마트!까 시원하게 연중무휴 운영
상록수역 4번 출구, 중앙역 2번 출구